



# 스웨덴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에도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스웨덴의 각 중앙조직별 조직률의 감소 현황과 그 원인, 영향 등을 다룬다.

## ■ 각 노동조합 중앙조직별 조직률 감소 현황

스웨덴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LO(Landsorganisation),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마지막으로 고학력 전문 자유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SACO(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등 세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근 몇 년 간 스웨덴 노조조직률 감소 현황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노조 중앙조직에 따라 조직률 감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 노조 중앙기관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조직은 LO이다. LO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원의 약 9만 7천 명에 해당하는 7.2%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4분기 동안만에도 LO의 조합원 수는 22,400명만큼 감소하였다.

〈표 1〉 LO 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감소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8년 3월 31일 현재)	감소 인원(2008년 1월~2008년 3월)
금속	407,939	-6,052
지방자치정부 서비스요원	529,868	-5,758
유통업	151,973	-2,278
통신 서비스업	138,508	-1,978
건설업	117,745	-1,550
숙박업 및 요식업	44,603	-1,440
식품품 유통업	39,308	-927
임업 및 목재	48,685	-712
부동산업	35,520	-704
상업디자인어	22,633	-415
제지업	20,851	-310
페인트업	15,357	-158
전기공	25,763	-74
음악가	3,088	-15
운수업 노동자	미상	미상

자료 : LO-tidningen, "Fortsatt ras för facket".

LO의 자체 기관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O 산하 15개 연맹 중 보고를 하지 않은 운수업 노동자 연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연맹 중에서 2008년 1/4분기 동안 전체적으로 22,371명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다. 절대 숫자상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금속연맹으로 6,052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 정부 소속 노동자 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5,758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다. 금속 연맹의 노조원 감소는 스웨덴의 탈산업화와 국제화 추세와 비례해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부 소속 노동자의 노조원 감소는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하였던 복지사업의 민영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최근 몇 개월간은 2007년의 급격한 조합원수 감소에 비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sup>1)</sup>

1) LO-tidningen, 2008-04-11, "Fortsatt ras för facket".

〈표 2〉 TCO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변동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7년 12월 31일 현재)	변동 인원(2007년 1월-2007년 12월)	변동율(%)
제조업소속 사무직	273,484	-14,474	-5.0
초, 중등학교 교원	177,020	-3,081	-1.7
지방자치정부 사무직	127,448	-6,265	-4.7
일반기업소속 사무직	138,870	-16,125	-10.4
보건업 종사자	91,695	-2,609	-2.8
스웨덴 사무직	70,238	-5,177	-6.9
금융업	30,136	-1,361	-4.3
경찰서 사무직	17,442	536	3.2
저널리스트	14,280	-448	-3.0
보험 및 유사 금융업	11,926	-392	-3.2
극장관계 종사자	7,006	-879	-11.1
방위산업 사무직	3,511	-349	-9.0
약국 종사자	5,074	-167	-3.2
관세청	2,454	-39	-1.6
전문 고등교육 기관 교사	1,892	33	1.8
전문 음악인	1,601	-130	-7.5
농업가	882	-104	-10.5
전 체	974,959	-51,031	-5.0

자료 : TCO(2007), TCO의 조합원수 변동 상황.

16개의 산하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 TCO의 경우도 LO와 비슷하게 계속 조합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TCO의 조합원수는 전체적으로 약 5%인 5만 명이 감소하였다.

TCO 산하 16개 연맹 중에서 절대 숫자상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일반 기업 사무직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6,125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체 소속 사무원 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14,474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체 소속 사무원연맹 소속 노조원의 감소는 LO 소속 금속연맹의 경우와 비슷하게 스웨덴 기업의 탈산업화와 국제화와 관련되어 있다. 감소율을 볼 때 일반기업 사무직연맹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극장관계

〈표 3〉 SACO소속 각 연맹의 조합원 변동 상황

연맹	조합원 수(2007년 12월 31일 현재)	변동 인원(2007년 1월-2007년 12월)	변동율(%)
농지, 임산, 정원, 환경, 영양 전문가	5,733	+3	0.1
사회과학 전공자	36,984	+813	2.2
경제, 경영학 전공자	22,848	+268	1.2
문화 정보업	16,184	+25	0.2
작업 요법사	7,595	-127	-1.6
법률학 전공자	52,286	-109	-0.2
교회	4,156	-60	-1.4
물리치료사	9,571	-217	-2.2
고등학교 교원	55,898	-1090	-1.9
자연과학 전공자	16,479	+477	+3.0
현역 장교	8,806	-235	-2.6
교통 및 철도 전문가	3,390	+69	+2.1
보건, 정보 및 행정 전문가	10,379	-146	-1.4
건축가	6,565	+32	+0.5
약사	5,690	-9	-0.2
선박 기관사	1,734	-104	-5.7
토목기사	93,811	+805	+0.9
의사	28,943	-28	-0.1
정신과 의사	6,361	-52	-0.8
예비역 장교	2,303	-970	-29.6
교감, 교장	5,852	-216	-3.6
치과의사	6,953	-215	-3.0
대학교수	17,416	-473	-2.6
수위과 의사	1,993	+44	+2.3
전 체	427,930	-1514	-0.4

자료 : SACO(2008), 조합원 통계.

종사자 노동조합연맹이 가장 높은 노동조합원 감소율을 보였다.

L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CO의 경우도 2008년 이후 조합원의 감소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보건업 종사자 노동조합연맹의 경우 2008년에 들

어 조합원수가 4천명 만큼 증가한 것이다. 보건업 종사자들은 지난 4월 파업 기간 동안 비조합원이 당할 수 있는 만일의 불이익을 대비해 가입한 것이나 파업 종결 이후 약 천 명이 다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는데 비교적 다른 연맹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한 LO와 TCO와 달리 고학력 전문 자유직 종사자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SACO의 최근 몇 년간 가입자수 변동은 눈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볼 때 SACO 소속 노동조합원은 약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ACO소속 노동조합원의 증가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고학력화의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SACO 산하 24개 연맹 중에서 절대 숫자상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맹은 고등학교 교원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090 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비역장교연맹인데 같은 기간 동안 970 명이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교원노조원의 감소는 노조원 중 상당수가 1940년 출생자들로 이들이 점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함과 동시에 노조를 탈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감소율을 볼 때 예비역장교연맹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선박 기관사노동조합연맹이 가장 높은 노동조합원 감소율을 보였다. 현역 장교와 예비역장교노동 연맹의 조합원 감소는 최근 수 년간 지속된 스웨덴 국방예산 감소에 따라 스웨덴 도처에 산재한 군사기지의 폐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분야의 노동력은 보통 같은 SACO 산하 연맹에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연맹에 재가입을 하기 때문에 SACO의 전반적인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및 변동 원인

최근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해 반영된 결과이다. LO측이 특히 강조하는 요소는 정치적 요소이다. 2006년 9월 이후 중도보수 연합정권 정부 탄생 이후에 실업보험료 인상, 노동조합비 세금감면 혜택 취소가 실시되었다. 특히 LO 산하 노조 연맹에 소속된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실업보험을 탈퇴하면서 노동조합도 동시에 탈퇴를 한 것이다.<sup>2)</sup> 이런 사태를 주목해 LO의 단체협상 책임자는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는 정치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한 또 한 가지 이유로 스웨덴 청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들고 있다.<sup>3)</sup> LO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청년들은 예전의 경향과는 달리 노동조합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또 그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령이 24세 이하의 청년들 2명 중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 보고서는 청년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나 실업보험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비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높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의 취업 형태가 한시고용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연령대가 16~19세 사이의 노동자 중 3/4이 한시고용인 반면, 연령대가 20~24세 사이의 노동자는 거의 반수가 한시고용이다.<sup>5)</sup>

청년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한 또 한 가지 원인은 스웨덴 산업구조의 변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조업에 일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산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런 서비스 산업이 경우 임시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에도 스웨덴 제조업체가 국내보다는 국외에 더욱 확장하는 편이라 스웨덴 제조업 소속 노동자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TCO측은 노동조합원 조직률의 감소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기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노동자의 수가 한동안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보험료 인상, 노동조합비 세금감면 혜택 취소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생각을 더욱 부추겼다는 의견이다.<sup>7)</sup>

2) LO-tidningen, 2008-08-22, "A-kassoma fortsätter att tappa".

3) Svenska Dagbladet, 2007-8-21 "Unga ratar facket".

4)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5) Euroline, Trade unions take action to counter membership decline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8/06/articles/se0806029i.htm>, accessed on 2008-08-22.

6)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7) LO tidningen, 2007-09-14, "Totalt har 130,000 gått ur".

SACO의 경우 최근 가입자수가 약간 늘긴 했지만 SACO산하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중 정년퇴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상 대학이 신설되지 않아 대학 졸업자수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SACO소속 노동 조합원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 ■ 조직률 감소의 여파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감소한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종사자 노동조합인 LO이다. LO의 계속되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는 최근 10에서 15년 간 LO의 재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쳐 같은 기간에 중앙조직에 근무하는 약 3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원되었다. 이 인원들의 대부분은 LO의 자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인데 노조 자체 교육활동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조의 사업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sup>9)</sup>

최근 LO 산하 연맹 소속 노조원의 감소는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간의 세력 분담에도 영향을 가져왔는데 조합원의 감소는 산하 연맹의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중앙기관의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0)</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이로 인한 중앙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신규 노동조합원 모집을 담당하고 있는 LO의 제3부위원장 레이프 호칸손(Leif Håkansson)은 노동조합 가입을 중앙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노동이동률이 높은 청년층에 집중해 있는 사실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sup>11)</sup>

학생들이라든지 임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간 이동이 잦아 LO의 어느 특정한 노조연맹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8) Ibid.

9) Svenska Dagbladet, 2008-05-25, "Uppförsbacke för LO".

10) Ibid.

11) LO tidningen, 2007-10-26, "Rent LO-medlemsskap ett alternativ".

의 대부분은 청년층이며 또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 소속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럴 경우 직장에 따라 노동조합연맹이 다를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노동조합비와 실업 보험료를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O의 제3 부위원장의 제안은 이런 사실을 특히 주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LO의 부대표 올라 린트퀴스트는 그래도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대표가 사업주 대표와 단체협상을 할 경우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또한 노동조합은 장기고용자만 아니라 한시고용자의 노동조건도 협상하기 때문이다. 린트퀴스트는 현재 노동조합이 청년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효용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청년들이 일하는 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 대표가 없는 관계로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조차 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다.

LO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특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해 노동조합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를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유용성을 알리고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커피 휴식시간을 이용해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2)</sup>

최근 LO소속 노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LO의 정치적 역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보수연합정권하에 노조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LO와 사회민주당의 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LO의 스웨덴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의 감소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 ■ 맺음말

1990년대 초반 이후 노조 조직률 감소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 노조 조직률 감소는 2006년 이후 그 감소 속도가 가중 되었는데

12) Svenska Dagbladet, 2008-05-29, "Fikasamtal bättre än kampanjer".

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률의 증감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일부 증명한다.

최근 스웨덴노조 조직률 감소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직업이동성에도 기인한다. 단기 비정규 고용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에게 있어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특히 중앙수준단체협약 교섭시 사업주에 대항해 노동조합의 역량과 대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속되는 노조 가입률 감소는 앞으로 노동조합 중앙조직 특히 LO의 정치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KLI**